



식량과 비료

2022년
10월호



1. 회원사 동경
2. 협회 주요 활동
3. 무기질 비료 관련 동향
4. 농정 이슈
5. 무기질비료 수급상황
6. 무기질 비료 우수성 홍보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소개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1 회원사 동정

□ 남해화학(주)

- 한국품질만족지수 비료부문 1위 선정
 - 소비자·전문가 만족도 조사결과



남해화학이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한국품질만족지수' 비료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남해화학이 '2022년 한국품질만족지수' 비료부문 1위 기업에 선정됐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품질만족지수는 기업의 제품을 이용해 본 소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다.

올해 첫 신설된 비료부문에서 남해화학은 당당히 1위 기업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남해화학의 비료는 성능, 신뢰성, 내구성 등 제품의 품질지수와 이미지, 인지성, 신규성 등을 평가한 감성품질지수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1974년 설립된 비료시장 국내 1위 기업인 남해화학은 국내 유일의 복합비료 생산시설과 전국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국 판매망, 물류기지를 이용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선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농지와 작물에 최적의 비료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주요 비료 제품은 기능성비료 판매 1위 '슈퍼원예S'를 비롯한 30여 종의 원예·과수 비료를 비롯해 완효성비료(밀거름 1회 시비) '오래가', 간척지 제염효과가 우수한 '칼슘유황비료', 스마트팜과 시설 원예에 적합한 수용성비료 '슈퍼솔' 등이 있다.

남해화학 관계자는 “한국품질만족지수 비료부문 1위 수상은 농업인들이 보내주신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토양에 맞고 성능이 우수한 농자재 개발을 통해 농업인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2.10.21.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주)조비

○ ‘단한번OK’ 완효성 효과에 토양 개량 효과까지

- 최적 비율 조합한 기능성 성분 NS, 토양 입단화 효과
- 미량요소 추가한 완효성 복합비료로 원예작물에 적합



(주)조비의 대표적인 완효성비료 ‘단한번OK’가 기능성 성분인 NS(뉴트리세이브)와 미량요소를 더한 완효성 복합 비료로 리뉴얼되어 주목받고 있다. 완효성 기술을 접목해 한 번의 시비로 추비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단한번OK’는 일반 비료보다 경제 적이며 수확량 증대에도 효과적이라 농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제품이다. 리뉴얼된 ‘단한번OK’는 (주)조비의 기능성 성분인 NS와 미량요소를 포함해 토양 개량 효과와 생리장해 해소 효과 까지 볼 수 있는 제품이다.

토양개량 기능성 성분 NS, 밭작물의 안정적 생육에 도움

‘단한번OK’의 토양개량 기능성 성분인 NS는 부식산, EM(유용미생물), 미생물 활성물질, 칼슘, 규산, 유기물이 최적의 비율로 조합되어 있다. 100% 천연 물질로 이뤄진 부식질과 부식산의 작용으로 토양을 입단화시켜 토양 공극이 증대되고 수분 이동 및 뿌리 발달에 방해되는 경반층을 해소해 뿌리 발육과 착근이 좋아져 마늘·양파를 비롯한 밭작물의 안정적인 생육 및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미생물의 작용으로 토양에 강하게 흡착된 비료 성분과 불용성 성분(염류)을 분해 및 억제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비료 절감 효과와 비효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염류 집적이 심한 시설재배지 또는 다년생 작물 재배지의 염류를 분해하고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양분으로 전환해 연작 장애를 해결한다. 이와 같은 토양개량 효과를 통해 보비력이 높아지며 뿌리의 생육과 활력이 증대되고 수분 조절에 도움을 준다.

‘단한번OK’ 완효성비료에 미량요소 더해 생리장해 해소 효과까지

‘단한번OK’는 필수 3요소 외에도 다량요소인 고토, 미량요소인 붕소, 망간, 몰리브덴, 구리, 아연이 함유되어 각종 생리장해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완효성비료인 ‘단한번OK’는 비효가 3~4개월간 지속 되어 경제적이다. 일반적으로 작물 파종 및 이식 전에 퇴비와 무기질비료를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작물 생육 중에는 웃거름 무기질비료를 사용한다.

생육기간이 긴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경우엔 웃거름 사용 횟수는 더 늘어난다. 퇴비의 경우 토양 개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처리 시 악취와 같은 불편한 점을 야기하고 처리 후에는 잡초가 다량 발생하여 추가적인 노동력이 요구된다. 일반 무기질비료 대신 완효성비료를 사용하면 비료 효과가 지속되어 작물 생육 과정 내내 비절 현상 없이 작물의 생육 단계에 맞춰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으며 웃거름 횟수 또한 줄일 수 있어 노동력이 절감된다.

(주)조비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완효성비료를 생산, 공급한 이래 20여 년간 1위를 지키고 있는 (주)조비의 ‘단한번’ 제조 기술에 원예작물에 유효한 성분을 조합한 ‘단한번OK’를 선보이게 됐다”며 “마늘, 양파, 고추, 배추, 무 외 모든 원예작물과 사과, 포도, 복숭아 등 과수에서도 믿을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추천했다.

※ 2022.10.13. 농기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 (주)팜한농

○ 3년 연속 품질만족지수 1위

- 작물보호제 부문 3년 연속 1위, 종자는 2년 연속 1위
- 제품 성능·신뢰성·안전성·이미지 등 높은 평가



이유진 팜한농 대표(왼쪽)와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이 '2022 한국품질만족지수 인증 수여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팜한농(대표 이유진)이 지난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KSA) 주관 '2022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인증 수여식'에서 작물보호제 및 종자 부문 각각 1위 인증패를 받았다.

작물보호제는 3년 연속 1위, 종자는 2년 연속 1위인 성과다.

이번 한국품질만족지수 조사에서 팜한농 작물보호제와 종자는 제품 성능, 신뢰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접근성을 평가하는 '사용품질'과 이미지, 인지성, 신규성을 평가하는 '감성품질'에서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팜한농은 2023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국내 1위 그린바이오 기업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작물보호제 개발이나 AI·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디지털 팜핑(Digital Farming) 솔루션 개발,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품종 개발 등에 나서며 농업분야의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하고 있다.

이유진 대표는 "팜한농은 농업인 고객의 영농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2022.10.23. 한국농업신문 기사내용 인용

□ (주)풍농

○ 고품질 마늘, 양파재배를 위한 필수자재, 엔피코 기능성·완효성비료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명품유비롱" "비효증진제, 완효성, 유기물함유 작물생육향상 기능성비료"
- "롱런모든작물" "규산,석회,유황함유 추비 생략가능 완효성비료"



완효성-모든작물

기능성-효과탁월

종합토양개량

신제품 완효성비료 롱런모든작물(12-5-5,고토2,붕소0.2,규산6,석회15,유황5), 기능성비료 명품유비롱(18-9-8,고토1,붕소0.1,유기물10,비효증진제함유)는 양분공급 기능 강화 뿐만 아니라 관행비료보다 양분공급이 완효적이며 양분흡수효율 20%이상의 시비절감형 비료입니다.

롱런모든작물비료는 마늘, 양파 재배에 알맞은 필수 삼요소와 고토, 붕소 함유뿐만아니라 완효성 비료로 3~4개월 효과가 지속되어 밑거름 시비 한번으로 양분이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규산, 석회를 다량함유하여 지력증진 및 토양환경 개선효과, 유황함유로 마늘, 양파의 황함유 아미노산 증가, 저장성 등 품질향상으로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완효성비료입니다.

명품유비롱비료는 기능성 비료효과증진제, 지효성 유기물, 완효성 및 필수양분을 고루 함유하여 마늘, 양파 등 원예작물의 양분흡수효율 20%향상으로 초기 뿌리활착이 빠르고 완효성, 유기물함유로 증기생육을 왕성하게 합니다.

전국 1,400여 농가 실증시험결과 농업인 95% 비료효과 만족, 공인기관 시험결과 마늘, 양파수량 6~8% 증수, 구 중 및 크기 5~8%증대로 비료효과가 뛰어난 기능성제품입니다.

사용량 및 사용방법, 롱런모든작물 마늘·양파 170kg/10a(추비생략), 명품유비롱 50kg/10a으로 전층 시비 되도록 토양과 고루 로터리 사용시 사용효율이 뛰어납니다.

*전용복비(기능성, 완효성비료)와 엔피코 용성인비를 함께 사용하시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공인기관 시험결과 마늘 수량 12% 증수, 품질향상(황함량) 13% 향상

※ 풍농 자료 인용

□ KG케미칼(주)

○ 김재익 KG케미칼 대표 "소재·스마트화학 미래 사업으로"

- 탱크터미널 등 신사업 추진 탄력... "회사 캐시카우로"
- 40년 화학기술에 AI 등 접목한 '스마트화학' 사업 전개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김재익 KG케미칼 대표

김재익 KG케미칼 대표는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탱크터미널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하며 앞으로는 ‘스마트 미래사업’을 적극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대표는 “액상 화물 탱크 사업에 진출할 예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차 탱크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며 “2차 사업 확장을 통해 중대형 급 탱크터미널을 보유한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KG케미칼은 신사업인 탱크터미널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그는 “장기간 KG케미칼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자회사인 KG에너지를 통해 2차 전지 양극재의 주 원료인 황산니켈을 생산하고 있다”며 “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KG케미칼은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화학제품을 제조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해 스마트팜이나 드론 비료처럼 첨단기술과 화학산업을 접목한 시대에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이나 사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KG케미칼이 최근 신규 사업으로 진출에서 매출과 이익 증가 등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체력과 조건을 갖췄다는 것.

KG케미칼은 올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 1154억원, 영업이익 144억원을 기록했다.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은 46%, 매출 증가율은 12%에 이른다. 김 대표는 “그간 메이저 화학업체인 바스프, 다우 등만 생산해온 페놀계 분산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 완료해 이미 선 주문으로 하반기 판매가 이뤄졌다”며 “또한 고품 비료도 성공적인 수출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KG케미칼은 올해 인도네시아에 고품 비료 수출에 성공하며 동남아를 중심으로 고품 비료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수출이 어려워 내수 시장에 그쳤던 비료의 수출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매출 기여도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사업의 점유율 확대와 신제품 출시 등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탱크터미널과 같은 신사업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주주 권익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에서의 홍보활동 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2022.10.14. 이데일리 기사내용 인용

2 협회 주요 활동

- 국제 원자재 수급 상황 및 현안 수시 대처(농식품부, 농협 등)
- 무기질비료 산업발전 관련 간담회 및 국회 국감 대응 등
- 비료관리법 개정 관련 회의 참석(농진청 등)
- 무기질비료 관련 이슈 대응 및 기자단 설명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3 무기질비료 관련 동향

□ 무기질비료 출하량 지난해 비해 5.6% 줄어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무기질비료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비료협회는 올 7월말 기준 무기질비료 농업용 출하량이 84만1000 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만1000 t에 비해 5.6% 감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비중별 출하 실적의 경우 요소와 완효성·기능성 복합비료는 지난해보다 각각 7%·21% 늘었으나, 맞춤형비료와 원예용비료는 지난해보다 각각 17%·20% 줄었다.

협회는 정부 친환경 농업정책의 지속 추진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완효성 비료의 인기, 비료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무기질비료 농업용 출하량은 토양검정에 의한 표준시비량 준수 정착과 환경친화적 비료, 완효성·기능성 비료의 사용 증가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협회에서 집계한 회원사의 국내 농업용 출하량은 2000년 184만2000 t에서 2010년 114만 t, 2015년 118만4000 t, 지난해 104만6000 t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사용량도 정체 수준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원자재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8월말까지 무기질 비료 생산업체가 수입한 국제 원자재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비중별로 90~122% 올랐다.

관세청 통관가격 기준 요소는 8월말 1t당 844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1달러에 비해 122% 인상됐다. 유럽의 암모니아 생산시설 가동 축소와 동절기 천연가스 수요 증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 등 수급이 불안정해 내년도까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산이암모늄도 8월말 1t당 956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4달러에 비해 90% 올랐다. 주 수출국인 중국에서 수출할당량 시스템을 적용, 내년도 4월까지 수출 전면 중단 등이 논의되면서 수급불안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내년도에도 농가보조사업의 확대, 원료구입자금 대상 금리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2.9.26.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한농연)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 발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한농연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은 17조 2,785억원으로 '22년도 본 예산(16조 8,767억원) 보다 2.4%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가 전체 예산안(639조) 대비 비중은 2.7%에 불과해 또다시 3%대 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 '안정적인 농업생산 여건 조성을 통한 국민 먹거리 복지 향상'을 목표로 ▲난방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 ▲경영이양직불 ▲전략작물직불 ▲탄소중립 지구 시범사업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수리시설유지관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 총 4,892억원에 대해 순증액을 촉구하게 되었다.

한농연은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2022.10.21. 한농연 보도자료

□ (농촌진흥청)농업·농촌 분야 규제개선 의지 다져

농촌진흥청이 28일 조재호 청장 주재로 규제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분야 규제개선 의지를 다졌다. 이날 점검 회의에서는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농업·농촌 현장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정비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 △규제혁신 홍보 및 역량 강화 교육 확대 △규제혁신추진단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 >

과제명	주요내용	조치사항	기한
토양미생물제제 신규균주 추가로 미생물비료 산업 활성화	기존 토양미생물제제의 균주로 황국균 등108종만 허용되어 있어 미생물비료 산업 활성화에 한계 개선 토양미생물제제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수량증대 효과가 있는 토양미생물 '페토박터 진생지슬라이'를 균주로 추가하여 미생물 비료로 생산 및 판매 허용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	'22.6 (이행완료)
사용가능한 비료의 구분 신설	기존 보통비료의 구분으로 질소질 비료 등 9종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설정 개선 황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황비료를 보통비료의 구분으로 신설하고, 액상 황을 혼합제조한 황-질소 비료를 생산·유통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	'22.11
우량비료 인정기준 완화	기존 우량비료 지정 시 엄격한 기준(개발 3년 이내의 새로운 비료 등) 적용으로 우량비료 지정제도 시행('97년) 이후 실제 지정 사례 없음 개선 우량비료 지정요건, 지정대상, 지정 절차를 개선하여 양질의 우량비료 지정 및 개발·보급을 활성화하고, 농업환경과 토양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 등에 기여	우량비료 인정기준 개정	'22.12

※ 2022.9.29.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 주호영 "납품단가연동제, 국회서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다"

- "이제 피할수 없는 상황...다만 시장논리와 상충 최소화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의 숙원 현안인 만큼 가까운 시간 안에 국회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근 이 대표가 국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받아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며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시장 논리와 상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한 참석자가 '납품단가연동제가 10월에 여야 합의로 반드시 이뤄졌으면 한다'고 하자

"대선 공약도 한 것이고 법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의 고민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임대차 3법을 보면 마구잡이로 하는데, 정교하지 못하게 (법개정을) 하면 다른 데서 부작용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정교하게 할지의 문제이지 우리가 소극적인 게 절대 아니다. 민생특위 활동기간이 10월까지인데 특위 합의가 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로 다시 넘어가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순 있지만 하여간 저희가 가장 정교한 모델을 찾으려는 것이다. 안 할 생각은 추후도 없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저희가 냈는데 그리 머지않아 통과를 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 2022.10.20. 연합뉴스 기사내용 인용

4 농정 이슈

□ (농해수위)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2%초과 생산, 수확기 5% 가격 하락시 자동 격리
- 수급조절 위한 논타작물재배 프로그램도 담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제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정훈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에는 임의 조항으로 들어 있던 쌀 시장격리요건을 2%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하락하였을 때 자동격리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쌀의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논타작물재배사업을 법제화 하여 쌀의 수급조절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 두었다.

이와 관련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제기한 법이 시행되면 과잉 생산을 고착화 시켜 선의에서 발의된 법이 쌀 산업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논타작물재배사업과 같이 수급조절을 위한 제도 또한 양곡관리법에 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2022.10.20. 팜인사이트 기사내용 인용

□ (통계청)2022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 '22년 쌀 예상생산량은 380만 4천톤으로 전년대비 2.0% 감소 전망
 - 재배면적: ('21) 732,477ha → ('22) 727,158ha (-0.7%)
 - 10a당 생산량(현백률 92.9%): ('21) 530kg → ('22) 523kg (-1.3%)
 - * 조정 현백률 90.4% 적용시: ('21) 516kg → ('22) 509kg
 - 예상생산량(현백률 92.9%): ('21) 3,882천톤 → ('22) 3,804천톤 (-2.0%)
 - * 조정 현백률 90.4% 적용시: ('21) 3,777천톤 → ('22) 3,702천톤

※ 2022.10.7 통계청 보도자료

□ (농촌진흥청)대파무화과 토양적성등급도 '흙토람'에서 보세요

- 대파, 무화과 추가 66작물 제공... 2024년까지 160작물까지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현장 수요가 많았던 대파와 무화과의 토양적성등급을 ‘흙토람’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토양적성등급은 토성, 배수등급, 자갈 함량 등 토양요인과 환경요인에 따라 해당 작물의 토양을 최적지, 적지, 가능지, 저위생산지 4개 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농업인이 자신의 토양에 적합한 재배 작물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흙토람에서 토양적성등급을 제공하는 작물은 과수류 10종, 과채류 10종을 비롯해 잎채소류(경엽채류) 10종, 약초류 7종, 곡류 6종, 뿌리채소류(근채류) 6종, 비늘줄기채소류(인경채류) 2종, 유지류 4종, 콩류 3종, 산채류 3종, 덩이줄기나 뿌리류(서류) 2종, 인삼 등 64종이다. 이번에 대파(잎채소류 1종), 무화과(과수류 1종)가 추가돼 모두 66종으로 늘었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대파나 무화과를 재배하려고 할 때, 토양적성등급이 없어 유사 작물의 토양적성등급을 참고하거나 경험에 의지해 재배했다. 대파, 무화과의 토양적성등급이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는 흙토람을 활용해 해당 작물의 토양적성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6작물의 토양적성등급을 확인하려면 흙토람(soil.rda.go.kr)에 접속해 ‘토양환경지도→지번 입력→토양정보→작물별 토양적성정보’ 순으로 입력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까지 농가 수요가 많은 160여 작물을 유사 작물로 묶어 토양적성등급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2022.10.17.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 (오피니언)쌀 생산과잉 문제, 가루쌀로 풀 수 있다



장판식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풍년을 기뻐해야 할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벼를 갈아엎는 안타까운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다. 쌀 생산 과잉과 가격 안정에 대한 해법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년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쌀을 공공 비축미와 시장격리 곡으로 매입한다며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올가을 수확기를 맞아 정부의 파격적인 비상 대책에 대해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분위기다. 다만 올해 이후에도 매년 쌀이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될 때마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생산 초과분을 매입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상당히 보인다.

무엇보다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쌀 생산은 재배 시기의 기상 여건에 좌우되지만, 이를 평년 수준으로만 가정해도 매년 20만t 정도가 초과 생산되고 있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금 논의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벼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할 경우 거의 매년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 2030년에는 1조 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시장격리 예산이 농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급히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 매년 쌀 20만t 초과 생산 반복돼
- 공급보다 수요 차원서 접근 필요
- 가루쌀 확대해 밀 수입 대체해야

쌀 수급 불균형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해 쌀 소비는 줄곧 줄고, 대신 밀 소비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 및 농업 기반 여건상 전체 밀 소비량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1% 미만이다. 초과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느냐를 놓고 벌이는 소모적인 논쟁 대신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지를 지키면서 어떻게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지 건설적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분질미) 생산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가루쌀이 무엇인지 의아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재배 방식은 일반쌀과 비슷한데 밀처럼 활용이 가능하다. 쌀 수급 문제와 밀 자급률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가루쌀이 떠오르고 있다. 우선 생산 측면에서 가루쌀은 6월 하순 이후에 늦은 모내기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쌀과 재배 방식이 같다. 가루쌀은 늦게 모내기하기에 이런 측면에서는 일반쌀보다 밀과의 이모작에 유리하다. 밀은 주로 6월 중순 즈음에 수확하는데, 일반쌀은 주로 6월 초·중순에 모내기한다. 이 때문에 농업인은 밀과 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런데 대부분 농업인은 쌀이 주된 작물이어서 밀이 충분히 익기도 전에 일반쌀을 심기 위해 밀을 수확한다. 이는 우리 밀의 품질이 저하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루쌀과 밀을 이모작 하면 우리 밀을 충분히 성숙시켜 품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루쌀도 안정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

가공 측면에서 가루쌀은 전분 구조가 성글게 배열되어 있어 일반쌀처럼 물에 불리지 않고 밀과 같이 건식으로 제분이 가능하다. 손상 전분이 많으면 가공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쌀은 물에 불려서 제분한다. 그러나 가루쌀은 건식 제분하더라도 전분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가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일본도 쌀가루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습식 제분에 따른 가공 비용 절감이 주요 과제라고 하는 것을 보니 한국이 보유한 가루쌀이 매우 획기적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가루쌀을 통해 수입 밀 수요를 줄이고 가루쌀과 우리밀의 이모작을 통해 우리밀 공급을 확대한다면, 쌀 수급 불균형 문제는 물론 밀 등 식량 수입 의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밀·콩 뿐 아니라 가루쌀을 대상으로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실시한다. 밥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가에도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모든 생명체는 일련의 생체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라는 생체 촉매제를 갖고 있다. 이는 소화·면역·항암 등 인체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가루쌀 활성화를 촉매해 우리 쌀과 밀 시장, 나아가 농식품업 전반이 원활하게 돌아가길 기대한다. 가루쌀이 어려운 3농(농업·농촌·농민) 현장에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

※ 2022.10.11. 중앙일보 기사내용 인용

5 무기질비료 수급상황

□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단위 : 천톤, 누계)

구분	'19년	'20년	'21년	'21년 8월말	'22년 8월말
생 산 량	2,319	2,142	2,287	1,763	1,511
출 하 량	2,218	2,054	2,319	1,762	1,462

※ 협회 회원사 기준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입가격 및 환율

(단위 : \$/톤, 원)

구 분	2021년		2022년		
	평균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암모니아	546	691	894	1,048	964
D A P	552	1,004	951	944	940
염화칼륨	317	401	578	678	994
환 율 (매매기준율)	1,144	1,183	1,203	1,259	1,339

※ 관세청 무역통계자료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인용

6 무기질비료 우수성 홍보

□ 무기질비료 원료를 생산하는 국가

질소질 비료는 산유국은 납사나 천연가스 또는 중국은 석탄을 원료로 하여 암모니아와 요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산질 비료는 자원보유국에서 인광석을 채굴하여 수출하거나 가공한 DAP 등을 수출하고 있고, 칼리질 비료는 자원보유국에서 염화칼륨 광석을 채굴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질소질 비료 원료 중 암모니아 주 생산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트리니다드, 캐나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카타르 등 산유국이 주 생산국가이며, 요소는 중국,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캐나다, 독일 등 산유국이 주 생산 국가입니다.

인산질 비료의 원료인 인광석을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 모로코, 미국, 러시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이집트, 튀니지아, 베트남 등이며, DAP 생산국가는 중국, 미국, 인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요르단, 호주 등입니다.

칼리질 비료 원료인 염화칼륨을 생산하는 국가는 캐나다, 러시아, 벨라루스, 이스라엘, 요르단, 독일 등이 있습니다.

※ 자료 : 식량안보와 무기질비료 인용

7 이달의 주요 인사

□ 농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정현출(10.18)(前 국제협력국장)

8 회원사 제품소개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남해화학(주)



- 제품명 : 한아름특호
- 성분량 : 12-10-(9)+3+0.2
- 특성 및 효과
 - 황산가리 함유로 당도, 과색 등 향상
 - 과수작물 및 원예작물에 알맞게 설계
 - 고토, 붕소를 다량 함유하여 토양내 미량요소 공급

□ (주)조비



- 제품명 : 미래로22
- 성분량 : 22-6-7+1+0.1 (PCA, 완효성함유)
- 특성 및 효과
 - 측조시비가 가능하고 시비량이 적어 노동력 및 영농비용이 절감
 - 작물의 뿌리 발생 및 발육을 좋게 하여 양분 흡수율을 높여 줌
 - 양분 보유 능력을 향상시켜 작물에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 해주며, 비료 성분의 유실이 적고 비효가 오래 지속

□ (주)카프로



- 제품명 : 유안비료(황산암모늄)
- 성분량 : 질소 20.5%, 유황 24%
- 특성 및 효과
 - 녹거나 굳어지는 일이 적어 수송이나 보관하기 좋고 물과 토양중에서 잘 녹으며 암모니아태 질소로서 화학반응 없이 벼에 직접 흡수되므로 요소보다 질소 흡수율이 높음
 - 채소, 과수와 같은 유황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작물에 효과가 큼

□ (주)팜한농



- 제품명 : 파워성장엔추비
- 성분량 : [13]-2-12+2+0.2
- 특성 및 효과
 - 국내최초, 국내기술로 개발된 질산태 함유비료
 - 양분 흡수이용률이 뛰어나 웃거름 시비시 농산물의 조기수확 및 수확량 증대에 효과가 우수
 - 질산태질소는 칼슘, 고토, 칼리, 아연, 철 등의 양소 흡수를 좋게 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
 - 질산태질소 함유로 하우스 재배시 암모니아가스 피해 발생을 감소
 - 저온에서도 양분이 잘 이동하여 과수의 수확 후 가을철 감사 비료로도 매우 적합

□ (주)풍농



- 제품명 : 뿌리왕왕
- 성분량 : 13-8-(9), 고토1, 붕소0.2, 유황10, 질산태질소·황산칼리 함유
- 특성 및 효과
 - 속효성 질산태(초산태)질소와 암모늄태질소 등 다양한 형태의 질소와 가용성인산, 황산칼륨, 유황 함유의 효과빠른 기능성 밑거름비료
 - 질산태질소 함유로 흡수효과가 빠르며 초기 생육을 왕성히 하며, 고토, 붕소 등 미량요소 함유로 결핍증을 예방
 - 황산칼륨과 다량의 유황함유로 원예·과수작물의 맛, 당도, 때깔을 좋게하여 고품질 농산물생산

□ (주)한국협화



- 제품명 : 보리,밀전용
- 성분량 : 21-15-5+1+0.1(규산, 칼슘, 망간, 미량요소 함유)
- 특성 및 효과
 - 보리, 밀 생육에 적합한 맞춤형 비료
 - 냉해방지 및 월동률을 높여 증수 효과
 - 질소, 인산, 칼리, 고토, 붕소가 풍부하여 내병성 증대

□ (주) 세기



- 제품명 : 원샷21
- 성분량 : 21-7-7+2+0.2(측조시비 가능)
- 특성 및 효과
 - 고토, 붕소, 유황, 석회, 규산 등의 미량요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매우 좋음
 - 저인산비료로 이끼나 괴불 발생이 심한 토양에 효과적

□ KG케미칼(주)



- 제품명 : 미생물발비료
- 성분량 : 12-5-(7)+3+0.3
- 특성 및 효과
 - 기능성 미생물 함유로 염류피해 및 병해충 경감에 도움
 - 부식산 함유로 토양개량효과 증대
 - 황산가리가 함유되어 작물의 품질(당도, 향) 향상

※ 2022 무기질비료 사용 안내서 인용



식량과 비료

-2022년 10월호-

KFA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